2017시즌 개막부터 불꽃이 튄다. 한화에서 새로 영입한 알렉시 오간도(왼쪽)와 아직 사인이 남아있지만 두산에서 뛸 것으로 유력한 더스틴 니퍼트의 개막전 선발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둘은 2010년 텍사스에서 함께 뛰었던 인연이 있어 흥미롭다. 스포츠동아DB

오간도 vs 니퍼트, 벌써부터 기대되네

한화-두산 개막전 선발 맞대결 가능성

오간도, ML 올스타 출신 역대급 이름값
니퍼트와 2010년 텍사스 한솥밥 인연도

한화가 메이저리그(ML) 올스타 출신 알렉시 오간도(34)를 영입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몸값만 180만 달러다. 두산 더스틴 니퍼트의 사인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계약한 10개 구단 외국인선수 최고 몸값이다.

●역대급 이름값 외국인투수 오간도

'이름값' 면에서는 KBO리그에 온 투수들 중 역대급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인 오간도는 큰 키(193cm)에서 내리 꽂는 시속 150km대 강속구가 일품으로, 투심패스트볼과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을 구사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과를 올린 투수다. 2010년 뒤늦게 빅리그에 데뷔했지만 2011년에는 29경기에 선발등판해 13승(8패)을 올리며 방어율 3.51을 기록했고, 올스타로도 뽑혔다. ML 통산 283경기(선발 48경기)에서 33승18패·4세이브·방어율 3.47. 경력만 보면 2014년 중반 한화 유니폼을 입은 에스밀 로저스보다 낫다. 로저스는 ML 통산 201경기(선발 43경기)에 등판해 19승22패·방어율 5.59를 기록한 투수였지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KBO리그 역대 외국인선수 중 ML 올스타 출신 투수는 오간도 이전에 1명뿐이었다. 2008년 KIA 유니폼을 입은 호세 리마(작고)다. 리마는 1999년 21승10패를 기록하는 등 빅리그 통산 89승을 올렸지만, 전성기가 끝난 시점에 KIA 유니폼을 입고 3승6패1세이브, 방어율 4.89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남겼다.

●오간도-니퍼트 개막전에서 선발 격돌

오간도가 한화 유니폼을 입으면서 벌써부터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이 그려지고 있다.

흥미로운 건 니퍼트와의 사연이다. 니퍼트는 2005~2010년 빅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119경기(선발 23경기)에서 14승16패·방어율 5.31을 기록했다. 둘은 2010년 텍사스에서 불펜을 책임졌다. 2011년 니퍼트는 두산과 계약하며 KBO리그에 진출했고, 오간도는 빅리그에서 13승을 올리며 생애 최고의 해를 보냈다.

2014년 텍사스에서 추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오간도는 이번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기대대로 1선발로 낙점 받는다면 올 시즌 개막전에 나설 수 있다. 니퍼트도 이변이 없는 한 두산과 재계약할 전망이어서 둘은 3월31일 개막전 선발 맞대결을 펼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잠실구장에서 LG와 개막 2연전(3연전 중 1경기 우천 취소)을 연장 혈투 끝에 모두 패했다. 시즌 초반 부진한 출발의 결정타였다. 올 시즌 개막전 장소 역시 공교롭게도 악몽의 땅 잠실이다. 상대만 바뀐다. 두산이다. 지난해 우승팀이자 상대전적에서도 4승12패로 밀린 강적. 여기에 두산은 지난해 22승 투수 니퍼트와 18승의 마이클 보우덴, 15승의 장원준 등이 선발투수로 줄줄이 대기할 수 있다. 올 시즌 마운드가 걱정인 한화로서는 개막 3연전부터 부담이 큰 상대와 만나는 갑갑한 상황이다.

특히 한화 김성근 감독은 유난히 시즌 스타트를 중요시하는 사령탑이다. 오간도가 들어오면서 선수단 전체가 절망 대신 심리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가질 수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금지된 다년계약 요구 두산 니퍼트의 무리수

두산과 외국인 에이스 투수 더스틴 니퍼트(36)의 재계약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지난해보다도 더 늦어지고 있다. 니퍼트는 지난해 1월6일에야 연봉 120만 달러 계약서에 사인했다. 두산은 2015년 우승했지만 니퍼트가 부상으로 6승5패에 그치자 삭감을 결정했다. 니퍼트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30만 달러 낮아진 연봉을 받아들였다.

올해 연봉협상은 1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 니퍼트는 2016년 22승3패 방어율 2.95를 기록하며 팀의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성적을 올린만큼 대폭 인상된 연봉을 요구하고 있다. 두산도 큰 폭의 인상안을 갖고 있다. 다만 결정적인 의견차이는 다년계약이다.

KBO는 외국인 선수의 다년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구단이 이면계약을 통한 편법으로 외국인선수와 다년계약을 맺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의 에이전트는 이 같은 편법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스카우트 사이에서는 "니퍼트가 2년 총액 400만 달러 선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돌고 있다. 두산 프런트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두산은 '고액 연봉 계약은 가능하지만 다년계약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칭스태프 회의에서도 '다년 계약은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니퍼트는 1981년생으로 올해 만 36세가 됐다. 투수로서는 정점이 지난 나이다. 물론 니퍼트는 만 35세 시즌이었던 2016년에도 167.2이닝을 던져 22승을 올리며 변함없는 리그 최고의 구위를 스스로 입증했다. 그러나 구단 입장에서 편법까지 동원해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2년 계약은 위험성이 높다.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두산과 니퍼트의 결별 가능성은 매우 낮다.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두산은 에이스 니퍼트가 꼭 필요하다. 니퍼트 역시 6시즌을 함께한 두산과의 인연은 물론 고액연봉이 보장된 KBO리그가 필요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임찬규-신정락-이준형 'LG 5선발' 3파전

임찬규, 몸 만들기 한창…완급조절 보완
신정락·이준형도 새 구종 무장 경쟁 돌입

LG는 2017시즌 선발진이 탄탄하다. 차우찬(30)을 영입하면서 데이비드 허프(33)~류제국(34)~헨리 소사(32)에 이어 4선발이 탄탄하다. 이제 선발진에 남은 과제는 5선발이다. 5선발은 선발진의 마지막이지만 사실 1선발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5선발이 등판한 경기에서 팀이 이기면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다. 5선발은 대개 승수를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목표 승수에 플러스 승이 되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도 크다. 실제 임찬규(25)는 지난 시즌 후반기 팀에 합류해 13경기에서 3승1패를 기록했다. 보이는 숫자는 썩 좋지 않았지만 그가 선발 등판한 10번의 경기에서 팀은 무려 6승을 거뒀다. 계산되지 않았던 승리 덕분에 LG는 후반기 KIA와의 치열한 4강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올 시즌은 5선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후보는 지난 시즌 이미 선발로도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임찬규와 군에서 전역한 신정락(30), 입단 직후부터 가능성을 보여준 이준형(24)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들도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

임찬규는 지난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만들기에 돌입했다. 체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무기는 완급조절이다. 지난 시즌 빠른 인터벌로 상대를 압도했다면 올해는 그 인터벌을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하면서 타자들과의 수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만약 그가 가진 구위에 완급조절까지 되면 가장 유력한 5선발이 될 수 있다.

신정락과 이준형은 새 구종을 장착하고 있다. 이준형은 "지난해 경험하면서 확실한 변화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체인지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캐치볼을 하면서 던지는 정도지만 스프링캠프를 통해 무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정락도 "사이드암 투수인데 체인지업에 약하다. 슬라이더와 커브 중간 구종(슬러브)을 던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볼도 하나 준비하려고 한다"며 "가장 원하는 보직은 선발인데 아무래도 2년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무리인 것 같다. 그래도 후반기부터는 선발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 / 한글 인터넷 주소 : 동아전람 / www.dong-afair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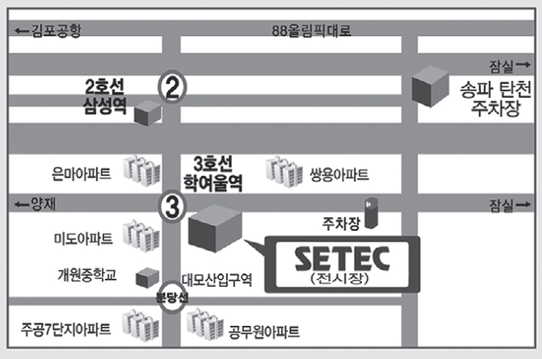
관람안내

제43회 MBC 건축박람회

• 주최/주관 : MBC / 동아전람
• 전시기간 : 2017. 1. 12(목) ~ 1. 15(일)
• 전시장소 : SETEC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앞) ※지하철 출구는 하나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 · 일요일도 동일)
• 관람문의 : 동아전람 Tel. 02)780-0366
• 전시품목 : 건축자재 / 인테리어 / 전원주택 / 냉 · 난방기기 / 건축정보 / 건축 · 주택관련제품
• 세미나일정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강사
2017. 1. 14(토)	14:00 ~ 16:00	제1관 삼성전자부스 내	삼성전자 공기열 보일러 대리점 설명회	삼성전자 / 나은시스템 최원선 전무이사

• 오시는 길 (SETEC) – 네비게이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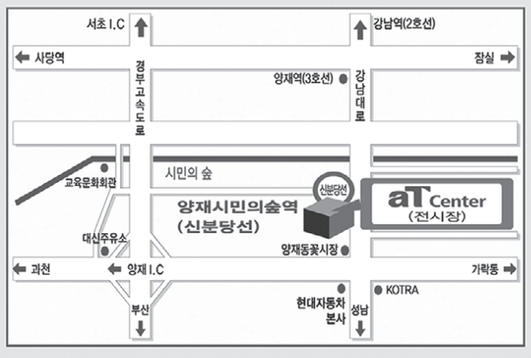
〈주차안내〉
자가용 이용시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탄천 주차장과 전시장간(SETEC) 왕복 무료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안내〉
송파구 탄천 주차장(출발) ▶ aT Center (전시장) ▶ SETEC (전시장) ▶ 송파구 탄천 주차장(도착)

제13회 동아 홈&리빙페어
2017 동아 가구·인테리어 박람회

• 주 최 : 동아전람
• 전시기간 : 2017. 1. 12(목) ~ 1. 15(일)
• 전시장소 : aT Center (서초구 양재동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 4번출구 앞)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 · 일요일도 동일)
• 관람문의 : 동아전람 Tel. 02)780-0366
• 전시품목 : 홈&리빙 – 가전 / 주방용품 / 욕실용품 / 홈인테리어 / 기타 생활용품
가구 – 가정용가구 / 종합가구 / 아동용가구 / 혼수용가구 / 기타 가구 인테리어

• 오시는 길 (aT Center) – 네비게이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셔틀버스안내〉
송파구 탄천 주차장(출발) ▶ aT Center (전시장) ▶ SETEC (전시장) ▶ 송파구 탄천 주차장(도착)